전북 새로운 보물 지정 기념 테마전

국립전주박물관, '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 15일~8월 29일까지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소장품이 새롭게 보물(제 2124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테마전 '전북의 새로운 보물, 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을 5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유물은 나주 정촌고분 출토품과 함께 삼국시대 금동장식신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고창 봉덕리 고분 유적은 삼국시대 무덤으로 1998년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 이 가운데 4호 구덩식(竪穴式) 돌방무덤에서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동장식신발을 비롯해 중국제 청자, 작은 단지로 장식한 구멍항아리, 청동잔과 잔받침, 큰칼, 금귀걸이 등이 도굴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당시 고창지역에 있었던 정치 세력의 위상과 함께 백제 중앙 세력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동장식신발은 삼국시대 장례 풍습을 잘 보여주는 껴묻거리(副葬品) 중 하나다. 또한 당시 금속공예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됐다. 고창 봉덕리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은 옆면을 거북이 등껍질 문양으로 나누고, 그 안에 용과 새, 사람 얼굴 모양을 새겼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용을 정교하게 투조(透彫)해 당시 백제의 뛰어난

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

금속공예 수준을 보여준다. 한편 에다후나야마 고분(江田船山古墳)이나 카모이나리야마 고분(鴨稻荷山古墳) 등 6세기 대의 일본 고분에서도 비슷한 금동장식신발이 출토돼 당시 정치적으로 밀접했던 백제와 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기회에 박물관을 방문해 새로운 전북의 보물 탄생을 같이 축하해 주길 바란다"며, "고대 사람들의 수준 높은 공예기법과 미의식을 느껴보시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주민시네마스쿨 개강

김제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과정 교육을 추진하는 주민시네마스쿨을 지난 11일 김제생활문화센터에서 개강했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동네 지역 이야기를 스스로 제작하여 배포 및 활용을 통한 지역홍보를 추진하고 대본작성, 편집 앱 활용, 캠코더 촬영 교육, 촬영, 편집 등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5회로 진행되며, 올해는 오소영 전주 국제단편영화제 운영팀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6월까지 김제시민 10명과 함께 콘텐츠 제작 기초과정(영상제작 이론 및 실습)을 공부한다.

상반기에는 기초(초급)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7월에 심화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를 통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촬영과 기획, 구성, 편집 등의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시네마스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127명이 영상제작교육을 수료했으며, UCC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총 4편으로 이 중 1편은 2015 전북사랑 UCC공모전 청소년부문에서 대상(만경고), 2016 전북사랑 UCC공모전 청소년부문에서 우수상(김제중)을 수상했다.

2020년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에 이어 올해도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에 참여한 요촌동 주민 오모씨는 "유튜브 제작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배워야할지 난감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교육 수강의 목표다"고 말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면서 영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주민시네마스쿨을 통해 폭넓어진 영화에 대한 시각이 주민들 삶에 더 큰 여유를 불어 넣어주길 바라며,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문화재단, 가족 특화프로그램 진행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가족과 함께하는 특화프로그램인 '공장으로 아트 피크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팔복예술공장 기획 입주작가 3기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주지역 7세 미만의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접수한다.

오는 19일 석가탄신일에 진행되는 '공장으로 아트 피크닉'은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한 굿즈 제작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예술놀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 감수성을 경험하고, 특히 유아기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아빠와 함께하는-공장으로 아트 피크닉'을 진행했다. 김명규 작가(우드스튜디오기억 대표)와 함께 가족 여행을 위한 캠핑용품을 제작하는 목공 예술놀이를 체험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에 특별한 예술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www.palbokart.kr)나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예술 · 디지털 기술 결합 공연 김제서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 28일 넌버벌 퍼포먼스 '디스 이즈 잇'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으로 넌버벌 퍼포먼스 '디스 이즈 잇'이 펼쳐진다.

말없이 소리와 몸짓으로만 이루어진 넌버벌 퍼포먼스를 컨셉으로 한 이번 공연은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공연으로 3D 애니메이션 레이저, 스트리트댄스, LED 트론댄스, 디제잉 등의 화려함이 어우러져 관객의 눈과 귀를 매료시킬 예정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획한 두 번째 공연으로 2016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뮤지컬 부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였고 매년 최다 관객을 갱신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연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

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박물관, '마한' 집중 조명

완주 상운리서 출토된 유물 · 근대 사용 대장간 철제도구 중심 특별전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홍찬석)이 2021년도 고대문화실 개편 일환으로 3층 고대문화실에 마한(馬韓) 특별전을 마련했다.

마한 특별전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 흐름식 전시에서 과감히 탈피해 마한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개편했다. 10년 전 처음 소개한 전시이만,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업그레이드를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 것을 영상으로 먼저 만날 수 있다. 특히 마한 역사문화 특별법에서 전라북도가 제외된 현실 앞에 마한 문화의 정수를 완주 상운리 유적을 통해 볼 수 있음을 역설하는 자리다.

특별전은 완주 상운리에서 출토된 대량의 마한 유물과 근대에 사용된 대장간 철제도구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1부는 상운리 선주민들로, 마한 이전에 존재했던 청동기시대 문화를 살펴본다. 2부는 상운리를 터전 삼은 마한으로, 분구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류를 감상할 수 있다. 3부는 마한 철기문화의 결정체로, 4~6세기에 부장된 다채로운 철기류와 20세기에 사용된 대장간 철제도구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4부는 마한의 장송의례로, 무덤에 부장된 독특한 토기류와 구슬을 만나게 된다.

/장은성 기자